

꿈꾸는 어와나

Clubber Story

과천 왕성교회 T&T 조수아

GwaChun Wangsung church, 6th grade, SooA Jo

2010년 6월 26일, 어와나 클럽원으로서의 마지막 대회인 어와나 게임즈에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금메달을 획득한 일은 지금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와나는 나에게 많은 즐거운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단원이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 다니는 과천왕성교회를 출석하게 될 때까지 '어와나' 라는 프로그램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어와나 클럽을 접하는 나로서는 어와나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임도 하고 핸드북 시간에 말씀도 외우면서 저는 어와나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고 어느새 핸드북도 2권을 끝내고 3권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와나가 익숙해져 가며 저의 태도가 처음의 열정보다는 조금씩 식어지는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암송과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들을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On June 26th 2010, winning a gold medal from my last Awana games day, as being the one of Awana members for the last time and after tasting bitterness of twice defeats, was unforgettably exalting and exciting memory by this time.

I have been Awana member for 2 years. I hadn't known about 'Awana' program before I went to this GwaChun Wangsung Church. As I was an outlander of Awana, it drove me some awkward and unfamiliar emotions, But thanks to God, it also made me pledge to myself that I would try to do my best in this community. I became more used to Awana by playing games and memorizing the bible and started the third Awana handbook after finishing the second one. However, I felt that my attitude and mind had been changed and had not same passion as that of I had in the first day as I more accustomed to Awana. So, I resolved that I would do much better with all my heart and passions reminding myself of my original intention whenever praising God, memorizing his words, and listening to a sermon.



핸드북을 통해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던 구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디모데후서 2:15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어와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구절이 어와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디모데후서 2:15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일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제는 어와나 단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성하기도 합니다.

While I practiced the memorization of bible, Timothy 2:15 was moved and touched which says that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has no need to be ashamed, right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The reason that it was touched my heart is that it perfectly represents 'Awana' at the same time it is actual meaning and ultimate purpose of Awana. But, I questioned to myself whether I have actually lived the life regarding to this Timothy word. Am I not ashamed and approved worker? Looking back on how I have lived so far, I reflected on my conduct and thought to be live along as God's approved and no ashamed worker.

이렇게 2년 동안의 어와나에서의 활동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제 믿음의 높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와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어와나를 접해보고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어와나를 접하는 7 세들도 저와 같이 어와나를 졸업할 때는 '어와나' 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years experiences in Awana gave me unforgettable experiences and memories as well as enhancing level of my faith to God. I hope never-ending energetic activities of Awana program. Furthermore, I wish that more children who didn't know about the God experience in Awana and meet God from here. In addition, I hope that 7 years old children who just start Awana program say thanks to God about letting them know this good program to fully worship him when they graduate Awana program as I do right now.